



정각원 개강법회서 법문
현성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
는 3월 24일 동국대학교 정각원
2003년 개강법회에서 법문을
했다.



'소쩍새마을' 창간 기념식
총법 승가원 이사장은 '소쩍새
마을' 창간 10주년을 맞아 3월 오
후 5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승가원
강당에서 기념식을 갖는다.



해동사 부설유치원 낙성식
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8일
오전 11시 경북 안동 해동사 부
설 유치원 낙성식에 참석, 법문을
한다.



명예대승정 추대
자우 서울 금강사 주지는 3월
25일 불교종단 합보라마 담
마자보 총무원장으로부터 명예대
승정에 추대됐다.



식목일기념 나무심기
성운 서울 은평노인복지관장은
5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야외
행사장에서 제58회 식목일을 기
념, 식목행사를 연다.



진신사리 친견법회 봉행
총후 북한산 노적사 주지는 2일
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초청, 부
처님 진신사리 및 장엄 친견법회
를 봉행한다.(03)353-5016



日 학생참여 평화교류캠프
원행 나눔의집 원장은 3월 22,
23일 일본 오사카 마츠바라고등학
교 학생들이 참여한 평화교류캠프
를 개최했다.



3개월간 불교경전 강의
수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는 7일
부터 매주 월요일 3개월간 진행되
는 불교경전 강의를 실시한
다.(051)291-1176



과천복지관 5주년 기념식
대원 과천복지관장은 3월 26일
복지관 개관 5주년을 맞아 국회의
원 안상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
데 기념식을 열었다.



진목대사 성도 차례제 봉행
종우 김재 성도만 주지는 9일 오
전 11시 조선 중기 고승인 진목대
사 성모님 차례제를 봉행한
다.(063)542-6991



17차 학술발표회 개최
해주 불교학연구회장은 12일 서
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제17차 학
술발표회를 개최한다. 이덕진, 임
승택 발표 예정.(02)2260-3128



학생·교직원·주민 건강진단
손재석 위덕대학교 총장은 건강
복지센터를 개장, 3월 24일부터 학
생, 교직원, 지역주민을 대상으로
건강체력진단을 실시하고 있다.



'모든 것은 변한다' 주제 강연
박완일 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
20일 익산 원광대에서 행정대
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'모든
것은 변한다' 주제로 강연했다.



법안화 기금모금 음악회
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3월
저녁 7시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
불교상담개발원 법안화 기금 모금
을 위한 '마음산책 음악회'를 연다.



'건봉사 사적' 출판 기념식
김재일 전국염불단연합회장은 3월
31일 광화문 하이마트 뷔페에서 <
건봉사 사적> 출판 기념식을 열었
다.



'부시는 전쟁중' 번역 출간
김창영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
협력위원장은 3월 1일 밤 우드위
드의 <부시는 전쟁중(Bush at
war)>를 번역, 출간했다.



제2회 절하기 대회 개최
정우식 조계사창년회장은 8일
저녁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
회 절하기 대회를 개최한다.(02)
735-3724

“한국불교 국제화에 보탬됐으면...”

영·일어 불교용어사전 펴낸 이태길 국제포교사



“외국인을 상대로 불교와
사찰을 설명하는 현장에서
불교용어를 어떻게 설명해
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많습
니다. 불교용어를 일목요연
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낀 거
지요.”
최근 불교용어를 영어와
일본어로 정리한 불교 미니
사전(사진·아래)을 펴낸

가 1,200여 단어를 영어와
일본어로 정리해 웬만한
내용은 모두 담고 있기 때
문이다.
“외국인에게 한국의 불
교와 문화를 좀 더 정확하
고 쉽게 알리고자 하는 이
들과 한국불교를 국제화하
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
길 바란다”는 이태길 국제

수익금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부에

이태길(사진·위) 조
계종 국제포교사. 그
는 2000년부터 서울
삼성동 봉은사에서
외국인 사찰안내 통
역봉사를 하면서 대
웅전, 범종, 삼법인
등 불교용어를 외국
어로는 어떻게 표현
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.
다국적기업에서 30여년간 종사해 온
다국적기업에서 30여년간 종사해 온
다국적기업에서 30여년간 종사해 온
다국적기업에서 30여년간 종사해 온
다국적기업에서 30여년간 종사해 온



포교사는 불교 미니
사전을 판매해 얻은
수익금을 세계불교
도청년우의회 한국
본부 운영비로 기탁
할 예정이다.
이태길 국제포교
사는 레이팅은 인터
내셔널 코리아 영입
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세계불교청년우의회
국제교류연구부장, 봉은사 외국인 통역봉
사모임인 문사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, 부
인과 큰딸, 작은딸이 모두 조계종 국제포교
사로 활동하고 있다.
박봉영 기자 bypark@buddhapia.com

“모든 것 나를 위해 한 것 뿐인데”

교보환경문화상 수상 도법 스님



“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
때 기분이 아뭏겠습니까. 상은 특별
한 사람에게만, 사람들이 순철찬만
한 일을 했을 때 주는 것으로 생각했
기 때문입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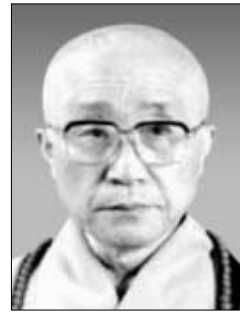
매년 각 분야에서 시민환경의식
고취와 환경친화적 사회실현에 크게
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
교보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도법
스님(남원 실상사 주지·사진). 스님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
식을 듣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.

스님은 당신의 인생을 온통 자신을 위해 살아왔을 뿐인데도,
더구나 출가수행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자기 삶을 살아왔을 뿐
인데도 상을 받게 돼, 기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.
“인드라망생명공동체, 실상사사부대중공동체, 한생명, 작은
학교, 지리산생명연대 식구들에게 이 상을 돌립니다. 사실 이 상
이 주어져야 한다면 이 도반들의 몫이며 제가 대신 받았을 뿐인
니다.”

시상식은 4월 22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.
남동우 기자 dwnam@buddhapia.com

“주민들 내집처럼 편히 이용하길”

수유복지관 개관한 수혜 스님



“수유복지관의 주인은 강북구 모
든 주민들입니다. 내 집처럼 편하게
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

8년 만에 서울 수유복지관 공사를
끝내고 23일 준공식을 개최한 수혜
스님(운가자비원 대표·사진)의 인
사말이다. 96년 복지관 건설 공사의
첫 삽을 뜬 스님은 탁발로만 28억원
을 모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
수유복지관을 완성했다. “국가로부터의 일체 지원을 받지 않고
이런 불사를 완성하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”는 스님
은 “자비는 구호만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할 때가 의미
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이번에 수유복지관을 건설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은 96
년부터 서울에 수유2동 어린이집, 수유 4동 어린이집, 은평구
어린이집, 원효로 새싹어린이집, 성수1가 진터마루 어린이집 등
과 강원도에 인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.

강유신 기자 shanmok@buddhapia.com

본지 414호 인물특정 중 원정 생계사 주지 스님 사진이 바
뀌었습니다.



대구 불교회관 개관식

대구 사원주지연합회(회장 원명스님)는 3월 25일 대구 불교회관 1
층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. 이날 행사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
님, 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법타스님, 재가신도 5백여 명이 참석했다.



자연보호실천위원회 발대

부산·경남 포교사단은 3월 23일 통도사에서 자연보호실천위
원회 발대식을 가졌다. 이날 행사에는 부산·경남 포교사단 포교
사 400여 명과 통도사 총무국장 산용 스님 등이 참석했다.



파라미타 대표학생협 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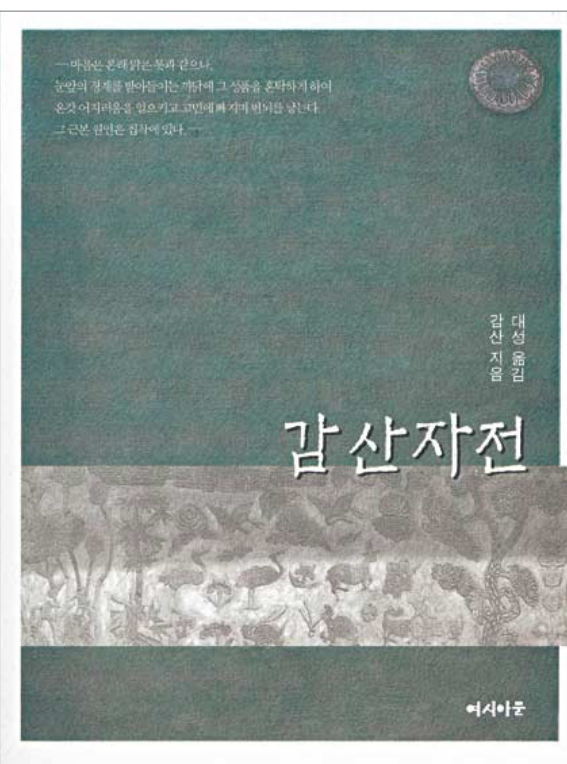
(사)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장 지성스님(동화사 주지)은
3월 22일 대구불교대학에서 '대표학생 협의회 결성식 및 지도교
사 간담회'를 갖고, 2003년 중점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.



구미불교대 입학·졸업식

구미불교대학(학장 묘운)은 3월 14일 법당에서 불교대학 입학
식과 졸업식을 개최했다. 이날 행사를 통해 기본과정 6기 133명
과 전문과정 3기 51명이 구미불교대학에 입학했다.

김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



신국판 변형 248쪽 값 8,000원

마땅히 가야 할

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...

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

-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『김산노인자서연보실록 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』으로,
김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, 문학적 전기
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
깝다.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,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
있으며,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. 그러나 중
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
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.
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. -

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(道)를 말할 수 없다.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, 존재하는
것은 아니다.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.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
겠는가?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.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
다.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?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.

지은이 김산 (慈山, 1546-1623) 스님은 운서 주공, 자백 진가, 우익 지옥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
일컬어진다.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.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로 無差을 열어 법
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.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. 1616년에
는 여산麓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,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.
옮긴이 대성 (大晟)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.
『참선요지』와 『방편개시』(여시아문)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리쉬관련서적들을
‘아루나잘라 총서’(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.